

제시문 (가)의 필자는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지 않는다고 했다. 이는 인간이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. 반면 제시문(다)의 필자는 인간이 죽음을 기피한다고 했다. 이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.

이 두 입장을 근거로 (라)의 실험 결과를 해석해보면, (가)의 주장과는 불일치하고 (나)의 주장과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(라)의 표에서 피험자들은 주어진 조건인 배설물과 연관성이 깊은 상황일 때, 죽음에 대해서 약 3배 더 적게 인지했다. 오히려 배설물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친구를 떠올리는 상황과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죽음에 대해 보다 약 3배 더 많이 인식했다. 즉, 기피하는 상황과 연관될 경우 죽음을 인식 못했다는 것이고 기피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죽음을 더 많이 인식했다는 것이다. 이 실험결과는 (가)의 필자가 주장한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지 않는다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. 만일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지 않았다면 연관성이 높을 수록 죽음을 인식을 많이해할 것이다. 하지만 3배 더 적게 인식했다. 반면 (다)의 필자의 주장과 (라)의 실험결과는 일치한다. 이는 연관성이 클수록 죽음을 적게 떠올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. 실험1과 실험2 모두 연관성이 높을 때, 3배 더 적게 인지했다.

이를 바탕으로 볼때, (다)의 필자의 주장과 같이 인간이 죽음을 기피한다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. 이는 (라)의 실험결과에서 기피하는 상황과 연관될 경우 기피하는 대상을 더 적게 인지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.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자는 기피하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3배나 더 인식한 것을 보고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할 것이다. 하지만 이 주장은 실험1과2 모두에서 을이 죽음과 연관된 단어가 전체의 비율을 볼때 매우 작다는 점에서 타당하지가 않다. 따라서 (다)의 인간은 죽음을 기피한다는 주장이 (가)의 주장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(986자)